

분과별 심포지엄 참관기

The Sectional Report of the 39th Korea-Japan Professional Engineer Symposium

제3분과

기술사윤리, 기술사자격, FTA



글 | 金 活
(Kim, Hwal)

정보통신기술사
(주)엠제이텔레콤 대표
정보통신기술사 분회 총무

E-mail : hwalkim@paran.com



▲ 제3분과 심포지엄 후 기념촬영

제3분과 첫 번째였던 일본측 발표는 Hashimoto Yoshihei의 「기술사 윤리와 일본기술사회의 동향」이었다. 윤리적인 기술자란 단순히 말하면 “기술자 윤리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라고 말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윤리와 보완관계에 있는 법에 대한 소양이 필수적이며, 기술자 윤리를 근거로 한 실천을 하려고 했을 경우 기술자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협회나 전문직단체의 윤리강령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형식적으로만 들어보았던 기술사 윤리라는 주제를 법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의미심장해 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발표내용이었다.

일본측 2번째로는 「사회의 기술 사조(思潮) - 전문직능자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윤리규정사례」라는 주제로 Miyahara Hiroshi의 발표였다. 일본에서는 건축에 관계되는 트러블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의뢰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문가와 일반시민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여 대응해야 하며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전문가 업무에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JSCA(일본 건축구조기술자협회) 윤리규범 사례를 들어 자세히 소개하였다. 향후 한국의 전문가 집단에서 윤리규범을 만들 경우 구체적으로 참고할만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측 첫 번째 발표는 「녹색산업혁명과 지능형 전력망」이란 주제로 윤갑구기술사(에이스기술단 대표)님이 해주셨다. 3차 산업혁명은 녹색산업혁명이며 그 중에서 스마트그리드 즉 지능형전력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능형전력망은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활용하게하며 전력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송배전망을 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 외부 공격에 의한 사고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등

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및 전력전자기술을 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도 천문학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최근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하여 최종 전력소비자 측의 스마트미터링만 강조하는 논조가 매스컴에 많이 소개되었으나 이번 발표로 지능형전력망이야말로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한국측 2번째 발표는 「한일 해저터널과 동북아 통합교통망 구축」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초청되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오신 최치국 선임연구원님이 해주셨다.

일본은 한국과 육상교통수단을 연결하고자 1940년대 대동아공영권 구상의 실현을 위하여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근래에는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 추세 속에 한중일 FTA 체결 검토, 한일터널의 시발점 도시인 부산시와 후쿠오카시가 2008년 10월 양 지역 간 초광역경제권 형성 공식선언 등의 여건변화가 있어왔다. 한일해저터널은 동북아 통합교통망의 일환으로서 또한 양 지점이 동북아 중심경제권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일본의 민간단체인 일한터널연구회 노선계획 및 쟁점사항에 대한 소개와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노선 현장답사 및 워크샵 결과 도출한 3개의 노선 대안 쟁점사항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새로운 일본수상에 대한 기대감과 겹쳐지면서 한일 기술사님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발표였다. 특히 물리적인 터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일간 마음의 터널부터 뚫자는 발표자의 말은 오랜 기간 한일터널 문제를 연구한 연구자의 한일터널에 대한 진한 애정이 느껴졌다.

한국측 3번째 발표는 「건설공학 감리제도 국

제동향과 기술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문행규 기술사(MSI 대표)님의 발표가 있었다.

먼저 한국에서의 건축 및 기술사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미국, 영국, 일본에 있어서의 기술사 제도를 소개하였다.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 기술사의 역할 및 위상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기술사 위상제고를 위하여 기술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개선할 제도가 무엇인지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었던 의미있는 발표였다. 여러 한일 기술사님들도 많이 동감하였던 발표였다.

한국측 4번째 발표는 원래 「RFID기반의 자동차 물류혁신 사례연구」라는 주제도 김희연 기술사(오토에버시스템즈)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발표하지 못하여 아쉽게 생각한다.

제3분과는 기술자윤리, 기술사 자격, FTA라는 분과 주제로 한일기술사 양측으로부터 많은 발표와 심도있는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일본측의 발표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분과 주제에 충실하였던 반면에 한국측에서는 주제와는 동떨어진 발표도 있었던 것 같다.

내년 40회 한일 심포지엄에서는 기술사윤리 문제에 대하여 한국측에서도 구체적이고 성과있는 발표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009년 5월 한국기술사회가 제정한 기술사윤리강령에 대한 홍보방안, 윤리적 영역과 기술사 관련 법적 영역에 대한 연구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한국 기술사들 내부적인 토론이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FTA와 기술사들의 국제화란 문제에 관하여 한일간 쟁점사항 등에 대한 발표가 없었던 점은 아쉽게 느껴졌다.

〈원고접수일 2009년 11월 9일〉